



3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금호아시아나 그룹 경영정상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영기 산업은행 수석부행장(가운데)과 오남수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전략본부 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워크아웃 금호산업

택시 2대 출발
그룹 모태기업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0일 주력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사사(社史)에 적지 않은 생채기를 남겼다. 특히 그룹의 모태인 금호산업의 경영권을 채권단에게 넘겨주게 돼 지역 사회에 주는 충격이 크다.

금호산업은 지난 1946년 4월 7일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이 17만 원의 자본금으로 미국산 중고택시 두 대를 사들여 설립한 광주택시로부터 출발했다. 지난 1984년 광주고속과 금호건설이 합병하면서 금호산업으로 재탄생했고, 지난 7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단일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까지 사실상 금호건설, 금호타이어, 금호리조트 등 3개 부문을 총괄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해왔다.

금호산업은 이후 금호가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 항공, 대우건설 등으로 잇따라 영역을 넓히는 발판을 제공하면서 재계 순위 8위에 오르는 토대가 됐다. 건설부문은 시공능력 평가 12위로 20078년말 기준 매출액 2조4천564억원 영업이익 1천614억원을 기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구조조정 어떻게

채권단 주도 인원 감축 등 본격화
지주社 석유화학 경영권은 지켜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등 잇따른 인수합병(M&A)을 거쳐 재계 8위에 올랐던 금호아시아나가 끝내 ‘승자의 저주’ (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했다가 차입금 상환 부담 등으로 부실 위험에 빠지는 것)에 휘말렸다. 지난 2006년 대우건설 인수로 ‘몸집’을 불린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결국 이 때 얻은 ‘빛’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룹의 앞길을 막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30일 주력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키로 함에 따라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금호 그룹의 경영권을 보장하며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등 ‘투 트랙’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그룹 오너는 사재를 출연하는 등 대주주가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군살빼기 가속도=금호의 두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 신청이 이뤄지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호아시아나 여신을 보유한 금융기관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을 통보한다.

여기에서 75% 이상의 동의를 거치면 워크아웃이 결정되는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주요 시중은행이 사전 협의를 한 만큼 워크아웃에는 문

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이 가결되면 채무는 동결되기 때문에 이 두 회사는 채권단의 자금 회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요하면 긴급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채권단은 이 기간 중 회사의 재무·자산·부채 실사에 나서는 한편 3개월 안에 경영정상화 약정을 맺고 지원 방안 등 워크아웃 계획을 실행하게 된다. 이 약정에는 출자전환과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 방안이 담기게 되며 채권단은 채무재조정을 거쳐 부채상환 부담을 더는 동시에 계열사별 재무실태를 파악한 뒤 우선 순위에 따라 운영자금을 수혈하게 된다.

금호그룹의 금융권 부채는 총 15조 여원으로 이중 금호산업이 약 1조6천억원, 금호타이어가 약 1조4천억원이다. 이 두 회사에 대해 출자전환을 할 경우 그 규모는 2조~3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자전환을 할 때 이들 회사의 감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은 줄어들고 채권단 지분은 늘어나게 돼 경영권이 채권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워크아웃이 경영권 취득이 목적이 아닌 만큼 경영권을 보장해줄 수도 있다.

매각이 무산된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사모펀드(PEF)가 지분의 50%+1주'를 인수하게 된다.

산업은행은 간사스자산운용과 함께 금호생명도 인수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원 방안과 함께 유류 부동산 매각을 비롯, 비주력 계열사 매각, 인원 감축·비용 축소 등 강력한 구조조정도 추진하게 된다.

◇금호, 그룹 경영권 유지, 오너 사재출연=당초 채권단이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던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호그룹과 채권단이 추가적 협의를 거쳐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조건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등 사실상 그룹

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하는 만큼 금호석유화학이 워크아웃에 들어감으로써 그룹 경영권이 채권단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는 피할 셈이다.

금호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채권단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했다는 점에서 채권단은 금호석유화학과 빛이 많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금호그룹의 자율 구조조정이 미흡하면 워크아웃으로 다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삼구 명예회장 등 금호그룹 오너는 보유 주식 등 사재를 출연하게 된다. 하지만, 총수 일가가 사재를 출연한

다 해도 그 규모는 많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박삼구 명예회장 등 총수 일가는 대부분의 사재를 계열사 주식 형태로 보유하고 있고, 보유 지분의 상당 부분이 담보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 일가 지분도 박 명예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전 회장(금호석화 지분 9.44%), 박 명예회장의 장남인 박세창 그룹 전략경영본부 상무(금호석화 6.66%, 금호산업 1.45%), 박찬구 전 회장의 장남인 박준경 금호타이어 부장(금호석화화과 금호산업 지분 9.03%), 고 박정구 회장의 장남인 박철완 경영전략본부 부장(금호석화 11.96%, 금호산업 3.59%) 등으로 모두 합쳐도 3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더이상 구조조정 없나=금호그룹은 지주회사인 금호석화를 지키는 대신, 워크아웃을 신청한 계열사 외에 여의치 않을 경우 계열사들의 추가 매각 등 구조조정을 각오해야 하는 형편이다.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대한통운, 대우건설 등 6개 주력계열사 가운데 3곳의 경영권을 포기했지만 채권단 일각에서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에 상응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이다. 이 과정에서 거론되는 게 대한통운으로, 대우건설과 함께 매각하는 방안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호남 유일 대기업, 금호까지...”

올들어 기업 워크아웃·법정관리 줄이어
지역경제계 “IMF 이어 최악” 노심초사

■광주·전남기업 구조조정 일지	
2006. 12	금호아시아나 대우건설 인수
2009. 1	대우건설·C&S중공업 퇴출 삼능건설·대한조선 워크아웃 결정
2009. 3	•YS 중공업 퇴출 •송촌종합건설·세한종합건설·한국건설·중도건설·TKS 등 5곳 워크아웃 결정
2009. 4	삼능건설·송촌종합건설 최종 부도
2009. 5	삼능건설·송촌종합건설 법정관리 개시 결정
2009. 6	금호아시아나 대우건설 매각계획 발표
2009. 11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제베즈 등 2곳 선정
2009. 12	•채권단·대우건설 포백음식 행사 한달 연기 •삼능건설 등 계열사 4곳 회생계획안 기결 •금호산업·금호타이어 워크아웃 결정 •대우건설 산업은행에서 50%+1주 인수

30일 금호타이어 및 금호산업의 워크아웃이 결정되면서 1997년 IMF에 이어 2009년은 사실상 지역 경제계에 있어서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연이어 터진 대우건설·C&S중공업 퇴출, YS중공업 퇴출, 삼능건설·송촌종합건설 최종부도 후 법정관리 등에 이어 호남의 대표기업인 금호아시아나그룹마저 대우건설 인수 여파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광주·전남을 본거지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 종사자는 물론 지역정·관계, 경제계, 시민들이 긴장감 속에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광주와 곡성에 각각 공장을 두고 있으며, 직원은 각각 2천930명과 직원 2천85명, 지난해 광주·곡성공장의 매출은 2조2천억원

에 이른다. 153곳(직원 1천853명)에 이르는 협력업체들은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소식을 전해 듣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건설과 고속 부문에 각각 1천2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는 78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타이어 업계 2위로 광주공장의 경우 지역 총생산액 5%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등 광주·전남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지난 8월 15년 만의 직장폐쇄와 공장 점거로 노사가 대치한 지 4개월만에 이번에는 ‘워크아웃’에서 관련 업계 종사자는 물론 지역정·관계, 경제계, 시민들이 긴장감 속에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나 금호산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협력업체나 직원 및 지역민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 각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200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드립니다.

심쫓았다!

한 해 동안 우리 한우를 가장해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한 해 동안의 감사를 담아
정식(正統)한우

대한민국의 자존심, 우리 한우에 보내주신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한우를 가장해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한 해 동안의 감사를 담아
정식(正統)한우

한 해 동안 우리 한우를 가장해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한 해 동안의 감사를 담아
정식(正統)한우

한 해 동안 우리 한우를 가장해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한 해 동안의 감사를 담아
정식(正統)한우

한 해 동안 우리 한우를 가장해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한 해 동안의 감사를 담아
정식(正統)한우